

부활

고전 15장

찬송가 158장 (하늘에 찬송이 들리던 그 날), 찬양 172장 (주의 이름 높이어)

오늘 배울



1.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실제로 있음을 확신합니다.
2. 이 세상의 유혹이나 어려움, 고통을 부활의 소망을 가짐으로 이겨낼 수 있음을 압니다.



이를 기이히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로
나오리라 (요 5:28~29)



을 이해하기

‘내가 부활되면 어떤 모습이 될까?’ 우리는 가끔 부활할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떠할지 생각해 보지만 언뜻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들을 관찰해보면 어렵잖이나 부활을 상상할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세상의 일들을 통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상의 일들을 알려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으로 주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그 결과를 설명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씨앗이 땅에 심겨지면 후에 각각의 형체대로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사실과, 사람과 짐승, 물고기와 새에게 하나님께서 각각의 육체를 주신다는 사실을 통해 우리 몸의 부활 때에 그리스도인에게 신령한 몸을 주실 수 있음을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형체는 우리가 무엇으로 심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애벌레가 고치를 틀고 나면 예쁜 나비가 되는 모습을 보면서 의인이 부활할 때 지금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것을 기대합니다. 반면에 에덴동산에서 뱀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현재 흉측한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저주를 받아 지옥에 가는 사람들은 아주 흉측한 모습으로 부활될 것을 믿습니다.

머지않아 주님이 다시 오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썩어질 몸을 순식간에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먼저 세상을 떠난 그리스도인들도 우리보다 먼저 그 부활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러한 약속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염려와 유혹을 떨쳐버리고 현재를 인내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공과말씀 정리



을 마음판에 새기기 (암송)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매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롬 8:24~25)

For we were saved in this hope, but hope that is seen is not hope; for why does one still hope for what he sees? But if we hope for what we do not see, we eagerly wait for it with perseverance (Ro 8:24~25)

1

말씀에서 핵심이 되는 단어 혹은 구절에 밑줄을 그어 보세요.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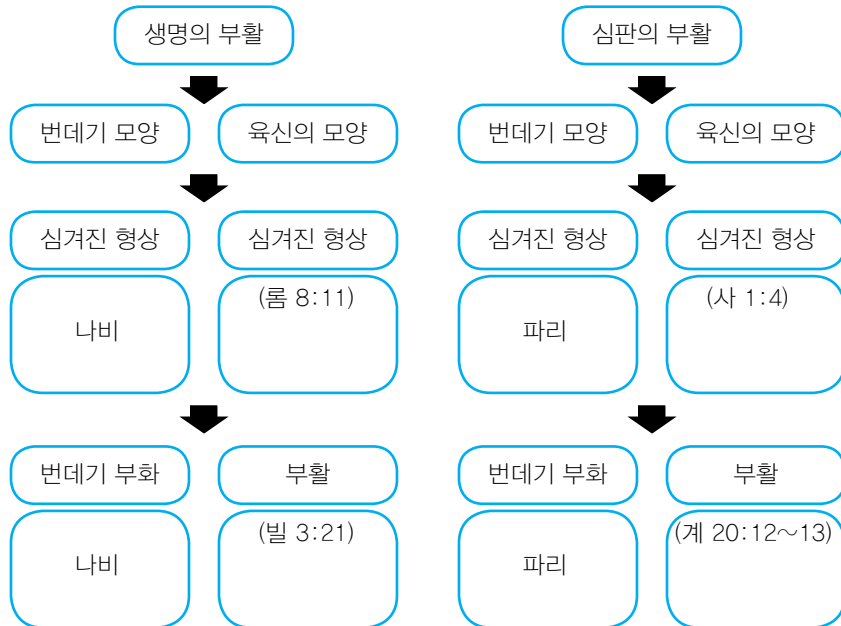
볼 수는 없지만 우리가 참음으로 기다려야 할 “보지 못하는 소망”은 무엇인지 로마서 8장 23절을 읽고 적어봅시다.



에 맞게 내 생각 바꾸기

1

요한복음 5장 28~29절 말씀을 읽은 후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을 비교할 수 있도록 괄호의 말씀을 참고하여 빈칸을 채워 봅시다.



2

영광스러운 의인의 부활을 소망하는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올바른 생활태도는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5장 15~18절을 읽고 정리해 봅시다.

3

요한일서 3장 2~3절 말씀을 보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는 예수님처럼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한다고 하십니다.

① 예수님처럼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는 의미는 무엇으로부터 구별된다는 뜻일까요?

② 삶이 거룩해지기 위해서 내가 지금 멀리해야 하는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적어봅시다.



을 삶에 적용하기

오늘의 말씀

(말씀 쓰기)

일

요 5:29

의

롬 8:11

화

롬 8:23

오늘의 기도

(감사 / 회개 / 간구)

수

고전 15:38

목

엡 5:15~16

미

빌 3:21

토

요일 3:2~3



재미있는 인체 이야기

-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사람의 눈동자는 점점 더 커져서 45%까지 확장되고 싫어하는 사람을 만나면 점점 더 작아 집니다.
- 갓난 아이는 3개월이 될 때까지 울음소리를 내지만 눈물을 흘리지는 못합니다. 인간은 눈물을 흘리면서 비로소 성장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 피가 몸을 한 바퀴 도는 데는 23초가 걸립니다.
- 사람의 눈이 한 번 깜빡이는 데 1/40초 걸립니다.
- 사람의 일생동안 인체내에서 일어나는 사건들 중에서 심장은 27억번 뛰고, 머리카락은 563m 자라고, 손톱은 한 손가락이 3.7m 자라며 127,500번 꿈을 꾸고, 3,000번 울고, 540,000번 웃으며 50톤의 음식을 먹습니다. 또한 심장에서 3억 3천만 리터의 피를 내보냅니다.
- 두 개의 콧구멍은 3~4시간마다 그 활동을 교대합니다. 즉 한 콧구멍이 냄새를 맡거나 숨쉬고 있을 동안에 다른 콧구멍은 쉬고 있습니다.
- 뼈의 조직은 끊임없이 죽고 다른 조직으로 대체됩니다. 이렇게 해서 7년마다 한 번씩 몸 전체의 모든 뼈가 새 조직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 인간의 몸에서 가장 강한 뼈는 넓적다리뼈입니다. 이 뼈는 강철과 같은 정도의 압력을 견뎌낼 수 있습니다.
- 현대인의 시체는 좀처럼 썩지 않습니다. 현대인들은 방부제가 든 음식을 많이 먹기 때문입니다.
- 자동차를 만드는 데는 보통 13,000개의 부품이, 747 제트 여객기를 만드는 데는 3,000,000개의 부품이, 그리고 우주선을 만드는 데는 5,000,000개의 부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몸에는 10,000,000,000,000개의 세포 조직이 있고, 정맥과 동맥, 모세혈관 등 혈관의 총 길이는 112,000km로 지구를 두 번 반이나 돌 수 있습니다. 또 피 속에서 산소를 운반하는 25,000,000,000개의 백혈구가 있습니다. 심장은 1분에 4.7리터씩 피를 내보내고 9,000개 이상의 미각 세포가 혀에 있어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의 몸에는 모두 206개의 뼈와 650개의 근육, 100개 이상의 마디가 있습니다. 이 놀랍고도 신비로운 메커니즘이 바로 조그마한 인간의 몸 속에 있습니다. 오! 놀라운 하나님의 솜씨여!



질문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믿은 모든 것이 허사가 됩니다. 우리의 구원도 헛것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은 역대의 모든 사람들의 삶도 헛것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고전 15:17)

예수님의 부활이 있어야 우리의 믿는 모든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를 부활의 종교라고 부르는 것도 과언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처럼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사 7:14), 베들레헴 탄생(미 5:2), 희생적 죽음(사 53:5), 못 박히심(시 22:14~18) 등 그 분에 대한 많은 예언들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예언의 말씀대로 그 분은 부활하셨습니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시 16:10)

예수님에 대한 다른 모든 예언들이 이루어졌는데 오직 부활에 관한 이 예언만 이루어지지 않았을 리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의 대속을 통한 구원을 계획하실 때 부활의 계획도 세우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거는 사도들의 행적과 기독교의 역사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잡힐 당시 뿔뿔이 도망치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실의에 빠져 예전 일터로 돌아가던 그 비겁자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모습으로 변하게 됩니다. 무엇이 그들을 이렇게 바꾸었을까요? 만약 유대인들의 말처럼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숨겨 놓고(마 28:11~15)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외치고 다닌 것이라면, 그들은 자기의 목숨을 기꺼이 내어놓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 로마 당국에서도 그들의 확산되는 사상을 막기 위해 어떻게든 예수님의 시신을 찾아내어 공개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가 그 모든 핍박과 역경 속에서 수많은 순교자들을 내면서 지금까지 전 세계로 뻗어가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의 예언과 또 직접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장사된 지 삼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그의 부활을 증거하며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미리 보는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에 증인이로다” (행 2:31~32)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행 4:33)